



《제25회 KES 결과분석》

정보통신혁명 ; 첨단 멀티미디어시대 개막

제 25회 한국전자전람회 (Korea Electronics Show)가 '94. 10. 12~10. 17일까지 KOEX에서 열렸다. 김영삼 대통령과 국내외 전자공업인, 일반관람객들이 대거 관람, 명실공히 국제 전자전람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전자산업의 풍요로운 한마당이 되었다.

본고는 사상 최대규모, 최대실적을 올리며 대성황리에 6일간의 행사를 마무리 지으며 분석한 한국전자전 결과이다.

1. 개황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동안 한국 종합전시장(KOEX)본관에서 상공자원부 주최, 본회 주관으로 제25 한국전자전람회가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스물다섯번째를 맞이한 한국전자전은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국내외 전자공업인들과 해외의 유력바이어 및 관련인사들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까지 포함하여 총 28만 5백여명이 참가하여 세계 6대 전자전의 명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10월 12일 개막식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운동운 체신부장관,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구평희 한국무역협회회장, 고명철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 등 귀빈들과 본회 구자학 회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거행하였다.

아울러, 행정부·입법부·경제단체 등에서 209명, 업체대표 760명 등 많은 전자공업인 및 관련 유명인사들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개막식 직후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의 귀빈들은 본회 구자학 회장의 전자전 개요 설명을 경청한 후 1층의 A/V, 가전관과 3층의 부품/소재, 산업용기기, 외국제품과 PC주기판관 및 국산계측기기 공동관 등을 차례로 관람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관람하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기술개발에 있다면서 그동안의 전자업계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특히 이번 한국전자전은 일본전자전 등 동남아의 유명전자전과 일정이 연결되었고 또한 관련기관 및 본회 협의회를 통한 공동전시로써 PC주기판 공동관과 계측기기 공동관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참가경비 절감과 개발제품의 홍보를 극대화하였다.

2. 출품동향

이번 한국전자전의 출품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규모면에서 18개국에서 420개사가 출품하였는데 국내는 300개사에 320종 73,000점, 외국은 120개사에 130종 12,000점으로 총 450종 85,000여점이 전시되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제품동향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멀티미디어의 기술개발 활성화로 고도 정보화시대의 개막을 예고하였다.

HDTV는 물론이고 CD-ROM 드라이브, VOD, CD-I, CD비전 등 멀티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제품과 기술들이 속속 선보여 고도정보화시대의 개막을 예고하였다.

둘째, 세계 일류화 기술개발에 결실을 맺었다. 세계 최초의 256MDRAM 개발, TFT-LCD/HDTV 브라운관/침단기술 가전제품 등 세계적 일류기술에 의한 제품들이 출품되어 우리 전자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

셋째, 환경 중시형 전자제품의 대거 출현으로 환경문제에의 슬기로운 대처가 돋보였다.

지구 오존층 보관을 위한 CFC(프레온가스) 대체냉매 채용 냉장고, 재활용 및 분리수거가 손쉬운 설계기법을 도입한 각종 전자제품, 전자파 장애감소 및 절전 효과가 뛰어난 그린PC 및 그린TV, 태양전지이용 에어컨, 소음을 대폭 감소시킨 진공청소기 등 다수의 환경 중시형 그린 전자제품들이 등장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있는 환경문제에의 슬기로운 대처가 돋보였다.

넷째, 그동안 수입사용했던 부품 소재의 국산화 활발로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도 크게 기대 되었다.

산업용기기 및 생산자동화라인에 필수적인 광센서, 캠코더용 CCD, 레이저용 모터, PTC 써미스터, SMD 소켓 등 각종 부품들이 개발되어 엔고에 대비한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의 기대로 그동안 전자업계의 핵심부품 국산화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차세대 수출유망 정보통신제품들의 다수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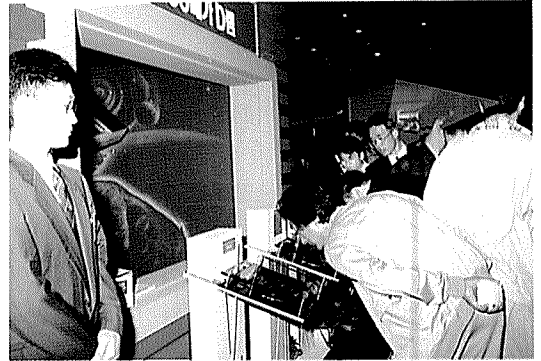
향후 세계적인 시장확대가 크게 기대되는 초소형휴대폰, 고해상(600DPI)레이저 빔 프린터, 가정용 팩시밀리, 자동차용 항법장치 등 다수의 제품 등이 우리기술로 개발되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 전자업계의 노력이 한층 돋보였다.

여섯째,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국형제품의 독창적 개발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식기세



▼ KES '94에 출품한 초고속 정보 단말 시스템



▲ 세계 최초로 개발한 256MDRAM을 관심있게 보는 관람객



◀ 미래의 대형 벽걸이 TV인 초박형 벽걸이 TV

한국전자전의 연도별 개최개요

항목 \ 연도	1969년 제1회	1975년 제6회	1977년 제8회	1978년 제9회	1979년 제10회	1980년 제11회	1981년 제12회	1982년 제13회	1983년 제14회
기간	11.8~ 11.25 (8일간)	10.8~ 10.25 (8일간)	10.18~ 10.25 (8일간)	10.11~ 10.18 (8일간)	10.25~ 11.4 (10일간)	10.7~ 10.16 (10일간)	10.14~ 10.20 (7일간)	10.29~ 11.5 (8일간)	10.11~ 12.27 (7일간)
장소	국립공보관	장충공원 가건물	여의도 전시장	여의도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별관	한국종합 전시장별관
규모(坪) (S/M)	360 (1.118)	800 (2.640)	1,600 (5.280)	2,100 (6.930)	2,850 (9.045)	2,260 (7.475)	2,755 (9.100)	3,600 (11.880)	5,400 (17.820)
참가업체(A)	3개국 78업체	5개국 152업체	7개국 206업체	8개국 228업체	11개국 257업체	9개국 214업체	12개국 229업체	12개국 280업체	12개국 330업체
국내업체	71	115	147	149	168	165	160	196	220
외국업체(B)	7	19	59	79	89	49	69	84	109
B / A (%)	9	13	29	35	35	23	30	33	33
출품수(點)	72종 20,600	321종 42,000	360종 40,000	403종 54,000	355종 57,000	365종 59,000	390종 63,370	403종 68,100	415종 72,600



김영삼 대통령께서 한국전자전에 출품된 첨단 전자제품을 관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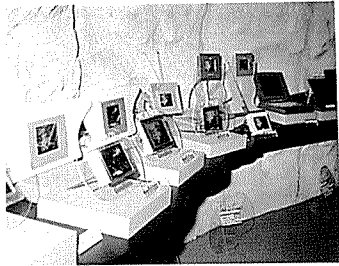
1984년 제15회	1985년 제16회	1986년 제17회	1987년 제18회	1988년 제19회	1989년 제20회	1990년 제21회	1991년 제22회	1992년 제23회	1993년 제24회	1994년 제25회
10.10~ 10.14 (5일간)	10.18~ 10.23 (6일간)	10.18~ 10.13 (6일간)	10.15~ 10.20 (6일간)	10.21~ 10.26 (6일간)	10.7~ 10.12 (6일간)	10.17~ 10.22 (6일간)	10.17~ 10.22 (6일간)	10.15~ 10.20 (6일간)	10.9~ 10.14 (6일간)	10.12~ 10.17 (6일간)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본관및별관	한국종합 전시장 본관및별관	한국종합 전시장 본관	한국종합 전시장 본관
4,000 (13,200)	4,600 (15,000)	4,770 (15,760)	4,770 (15,760)	4,920 (16,230)	6,284 (20,736)	6,300 (21,000)	8,550 (28,224)	8,550 (28,224)	6,284 (20,736)	6,272 (20,736)
14개국 380업체 210 170 45	14개국 445업체 244 201 45	15개국 460업체 262 198 43	15개국 465업체 246 201 43	18개국 475업체 272 203 43	15개국 475업체 292 228 44	19개국 520업체 314 211 40	19개국 573업체 335 238 42	16개국 530업체 335 195 37	17개국 45업체 317 133 42	18개국 420업체 300 120 38
420종 72,000	430종 73,000	430종 73,000	440종 75,000	450종 77,000	460종 80,000	475종 82,000	480종 89,000	485종 90,000	470종 87,000	450종 85,000



▲ 한국전자전에 입장하는 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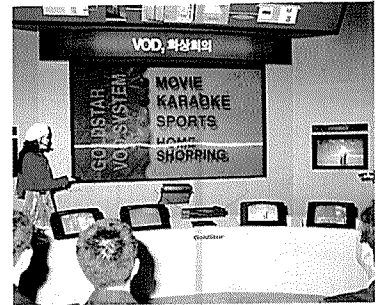
▲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업계의 홍보작전



▲ TFT-LCD



▲ 가상 현실을 시현해 보는 관람객



▲ 뉴미디어 시대 대표작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관람하는 모습

척전조기, 숯불구이 전자렌지, 홈(틈새) 먼지 제거 청소기, 김치숙성 냉장고 등은 일반인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형 가전제품은 업계의 디자인 개발능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제품으로 발돋움 할수 있는 전기로 평가받고 있다.

그외에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의 외국업체들도 다채로운 출품을 보였다.

특수반도체, 정밀부품 및 소재, 그리고 고정밀 계측기기 및 EMI장비 등 국내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었다.

3. 수출상담 및 관심품목 동향

가. 참관바이어 동향

세계 경제 회복과 선진공업국의 경기 및 투자활성화 등에 따른 수출시장 여건 호전과 엔

고에 따라 수입선을 전환하려는 바이어들이 뚜렷하였다.

또한 지난해의 전자전람회 내방 바이어 6,050명에 비해 500명이 증가한 6,521명이 참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바이어가 1,680명,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바이어가 2,538명,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지역이 1,436명, UAE, 이스라엘, 시리아 등 중동지역이 548명,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지역이 213명, 남아공, 자이레 등 아프리카 지역이 106명 등이 참관하였다.

국가별 바이어 참관 현황을 보면, 주 수출시장인 미국이 작년에 이어 선두, 그 다음으로 일본바이어, 작년에 몇십명에 불과하던 말레이시아가 300여명에 이르는 바이어들이 참관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10개국 바이어 내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국가별 참관바이어 현황

(단위 : 명)

순위	'94 KEC		'93 KEC	
1	미국	1,010	미국	935
2	일본	612	태국	492
3	홍콩	463	일본	489
4	독일	365	홍콩	314
5	말레이시아	300	인도	260
6	싱가폴	267	독일	218
7	태국	241	중국	212
8	스페인	241	이탈리아	209
9	이탈리아	235	대만	209
10	영국	195	싱가폴	167

또한 지역별 바이어의 관심품목 동향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은 품목 전반에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자동차 관련 오디오 및 자동차경보 시스템, 코드리스 전화기, 계측기, CCTV, 휴대용PC, SVR, 반도체, 컴퓨터 주기판, 칼라디스플레이 등에 집중되었다.

유럽지역은 자동차관련 전자제품에 특히 집중되었으며, 셀룰러폰, 인터컴, 계측기, SVR, FAX, CB트랜시버, 반도체 저항기, PCB, 스위치, LED 등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아울러 구소련 동구권에서는 TV, VCR 등 가정용 제품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시아지역은 C-TV, 비디오, CD플레이어, 영상가요반주기 등에 집중되었으며 중국은 특히 HDTV 합작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중동지역은 냉장고, 카오디오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아프리카는 인터폰, FAX, 노트북 PC, SVR에 관심이 모아졌다.

나. 수출상담동향

이번 한국전자전에서는 선진국의 경기 활성화, 우리제품의 경쟁력 제고, 엔고 등에 비해

유력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열띤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지난해의 전자전 수출 상담실적인 11억 5,000만불에 비해 1억불이 증가한 12억 5,000만불로 수출상담 실적이 집계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문별, 주요 품목별 수출상담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부문별 수출상담액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수출 상담액
총 계		1,250,791
가정용 (757,990)	C-TV(LCD 포함)	207,700
	냉장고	150,000
	카스테레오	106,154
	오디오(컴포넌트)	102,148
	VCR	92,380
산업용 (437,750)	계측기기	105,005
	컴퓨터	96,850
	FAX	53,470
	멀티버전	50,000
	공장자동화기기	45,000
부 품 (55,051)	반도체	14,100
	LED	14,195
	스위치	6,386
	키패드	5,000
	인덕터	2,600

4. 부대행사 개최

이번 한국전자전에서는 한·중 HDTV 공동개발 워크샵과 한·일 전자기술 합동세미나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되었다.

먼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과 잠재력이 그 무게를 더해 감에 따라 한·중간의 산업기술 협력문제가 대두되어 세계 전자산업의 분수령이 될 HDTV 개발을 한·중·중국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중HDTV 공동개발 워크샵

연도별 전자전 수출품 동향

회수	연도	특	색
1	1969	단일품종 전시회로서 국내 최대규모, 외국인투자업체 반도체소자 중심의 전시, TV 및 라디오의 중점적 전시	
2	1971	TV, 라디오 및 기구부품 중심의 전시.	
3	1972	Color TV 최초 전시.	
4	1973	컴퓨터 및 Color TV의 전시, 외국인업체의 대규모 수출, 국내 대기업의 신규 참여	
5	1974	전자시계 전시, 교육용 CTR전시, 전자제품 수입원자재 전시.	
6	1975	Color TV, 민간휴대용 무전기 등 해외수요 급증품목의 중점 전시, 신모델 개발제품 (라디오, TV, 녹음기, 앰프 등)의 대량 수출, 산업용기기 수출 증대.	
7	1976	컴퓨터 국내조립품, 금전등록기, CB트랜시버의 전시	
8	1977	태양전지응용기기, 컴퓨터응용장치,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수출유망 개발기기의 전시.	
9	1978	산업용 기기의 중점 전시, 전자의료기기 및 전자식 약기류 전시.	
10	1979	수출가능 품목 제품의 고급화, 절전형 전시.	
11	1980	반도체 및 컴퓨터 국산화 제품, 통신기기, 고신뢰성 전자제품, 고유 모델 개발품목의 전시.	
12	1981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가정용 전자기기의 전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기능다양화, 반도체 및 컴퓨터개발 심화, 제품소형화 및 고가품에 주력, 부품의 원료 및 소재개발로 국산화를 향상.	
13	1982	국내업체의 Computer 및 주변기기 전시, 통신기기 본격 수출, 가전기기에 Microprocessor 응용 활발, 전자부품의 정밀·고품질화 추세, 외국업체의 설비 및 전자교환기	
14	1983	16Bit Computer 등 컴퓨터 기종의 본격 수출, 국산화의 급진전, 열가 기종 출현, 광통신기기 및 DAD 등 전시, 초소형 VTR 개발 전시, 정밀 부품의 경박단소 추세, Robot 기기의 본격 전시.	
15	1984	Computer 및 주변기기의 고성능화, 응용 다양화, 고도화된 산업용기기의 신개발, VLSI급 반도체 위성방송 통신장치 등 수출 유망 New Media기기 및 '86년, '88년 Olympic 유망제품 전시.	
16	1985	다기능 컴퓨터 및 대용량의 보조기억장치등의 대거 수출, 고집적도 반도체 초정밀부품·소재 개발, Olympic 유망 상품개발 전시, 수출유망 고기능 가전기기, Laser 전자기기, OA, FA, HA 관련기기	
17	1986	세계 최초의 4mm 초소형 VTR-Camera+TV-체형, CD 및 CDP, 벽걸이 전자렌지, HA(Home Automation) 제품의 Network소개, 32Bit 소형컴퓨터, 초음파 의료기기(단층촬영기), 광통신 및 계측기기, 무인장고관리시스템, 부품자동진입장치개발, 국민 보급형 PC 40만원대 개발	
18	1987	대용량컴퓨터, 최신 첨단통신기기 및 의료용 기기 등 산업용 전자기기, 음성합성 VTR, DAT 등 고급 다양화된 가전제품 및 올림픽 유망상품, 1M DRAM, 복합화로 다층기판 등 경박단소화된 Chip형 부품소개, 최신 자동화 산업설비 및 정밀계측기기, 고급 첨단부품 및 소재	
19	1988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대, 주변기기 확충, 산업용기기의 비중확대, 자기기록용 산화철 분말 개발, CDP, Car Audio기기의 고급화, 고속 팩시밀리, 디지털 계측기기·시험기기	
20	1989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장, 사무, 가전자동화시스템, 고집적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등 2000년대를 주도할 첨단 전자제품, 고선명 대형TV, 캠코더, 디지털 오디오 등 뉴미디어 제품, 전파 방해 검사장비 등 초정밀 계측기기	
21	1990	PC의 고성능화 및 초소형화, 컴퓨터를 이용한 가사자동화시스템 및 뉴미디어 기기, 영상기기의 다기능화 (문자다중) 및 고해상화(S-VHS VCR, 8mm캠코더), 광전자제품(광자기디스크, 포토, 커피머, 수광 및 발광소자, 포토 인터럽터), 혁신적 소프트웨어제품(지문인식시스템), 자동화 및 고정질 SMC 제품 등	
22	1991	PC의 초소형화 및 고기능화(노트북형 PC 및 팜톱, 펜으로 입력하는 PC), 뉴미디어의 종아 CATV, 광통신 시스템, 광케이블LAN, 음성인식 TV, VTR, HA의 홈 서비스 로보트-온도, 습도, 침입, 추락방지, 경보감지, 인공지능 또는 뉴로퍼지 채용 가전제품, 16MDRAM 전자과 장에대책 부품, 자동계측제어장치 및 공장자동화 기기	
23	1992	와이드 화면TV(16:9), 양면 재생 LDP, DCC, CD-I, 물결레 청소기, 김치 냉장고, 국산간이 쌍방향 CATV, 공장자동화 시스템, 노트북 및 펜 입력 PC, 슈퍼VGA 모니터, 64MDRAM 시작품, 12인치 TFT형 LCD, 슈퍼 Flat Display, HDTV용 DY/FBT, 자동초음파 자동용접기, 정밀 계측제어장치.	
24	1993	HDTV, HDVCR, HD Monitor, CD-I 등 멀티미디어기기, 64MDRAM, 32M Mask ROM, 10.4" TFT LCD, 5" STN LCD, Green PC, Green HDD, CFC 대체냉매 냉장고, 팜톱PC, G4팩시밀리, 물결레청소기, 김장독냉장고, S-VGA보드, 수중스피커, FAX 모뎀카드, 디지털 RF계측기기, 특수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등	
25	1994	HDTV, CD-I, CD비전, VOD, 신냉매 냉장고, 그린TV, 태양전지 에어컨시스템, 초소형 휴대폰, 고해상도 레이저, 빔 프린터, 홈팩시밀리, 한국형식기 세척 건조기, 숯불구이 전자렌지, 김치 숙성 냉장고, 홈면지제거 청소기, 자동차용 항법 장치, 첨단기술 세탁기, Set-Top Box, 256MDRAM, TFT-LCD, 광센서, SMD 소켓, 캠코더용 CCD, 페이지용 모터, PTC 써미스터, HDTV 브라운관 등	

이 양국 HDTV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계/한국/중국의 HDTV 기술개발 동향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여 한국측 실무창구는 한국전자공업 진흥회, 중국측은 비홍전자주식회사로 확정하고, 우선 공동규격 연구부터 추진하고 세부적인 개발내용들은 실무작업반을 구성,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전자정보산업 기술의 세계적 발전추이를 전망하고 한·일간 기술 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전자정보기술 특히, 멀티미디어 산업의 기술동향과 향후 발전상을 모색하여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94 한·일 전자기술 합동세미나가 상공자원부 주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의 후원으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올림픽 파크호텔 올림픽피아홀에서 서울대 전자공학과 이충웅교수, 동경대 정보공학과 Sakamura Ken교수 등 양국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의 주제를 보면, 정보통신 기술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서울대 이충웅교수, Information Super High-way 계획과 전망을 동경대 Sakamura Ken교수, Multimedia Coding 기술과 DSP 기술동향 및 전망은 NEC정보미디어 연구소 Nishitani Takao 박사, VOD 기술동향과 산업전망은 금성사 김성우이사,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기술동향과 과제는 동경대 Hiromichi Hashizune교수, 이동통신 DSP Chip Set 설계기술과 일본 AT & T시장전락은 일본 AT & T Miyanga Hiroshi 박사가 발표하여 국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5. 평가

이번 전자전람회는 전반적인 세계 경기 회복

과 이에 발맞춘 국내 경기 활성화와 투자확대, 엔고에 따른 수입선 전환, "94 한국방문의 해"를 활용한 대내적인 해외광고 등으로 내방 바이어가 크게 증가하여 활발한 거래상담을 벌이므로써 전시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아프리카 각국으로 부터 산업협력 요청, 남미 4국 공동시장 구성국의 적극적인 관심표명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키는 멀티미디어 제품, 256 M DRAM, TFT-LCD, HDTV 등 세계 일류화 기술제품 등 전반적으로 출품수준의 현격한 상승을 보였다.

국산계측기기, PC기판 등 품목별 공동전시를 통해 전문전시의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예년에 비해 전시장내 음향방출, 이벤트 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중견 음향 업체들의 불참도 한 원인이지만 참가업체의 인식전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서 국내 전시문화의 진일보로 평가된다.

출품업체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전시기간 중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편 중국, 동구권 등의 바이어가 저조한 점으로 볼때 이들 지역에 대한 바이어 유치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도 지적 되었다.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전문전시와는 무관한 판매행위로 인해 전시분위기를 저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서 향후 참가업체를 보다 엄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참가업체에 대한 무료주차권 확대와 일기상황에 따라 냉방장치를 적절히 가동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시장내의 음향방출이 줄었다고 하나 외국 유명 전시회에 비해 여전히 소음공해가 심한 편으로서 음향업체 공동관 구성 등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적극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